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9.(목)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 배포 2026. 11. 18.(수)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3개소는 조건부 재지정, 매년 별도 점검·관리

- 2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지정(안) 심의 -
- 네트워크 시범사업 2차년도 성과평가 및 사후지원금 지급(안) 보고 -
- 119 신고부터 최종 치료 시작까지 1차년도 대비 출혈성 뇌졸중 310분 18초, 허혈성 뇌졸증 20분 54초 단축 -
- 2차년도 전문의 간 심뇌혈관질환 환자 의뢰 건수 2,137건으로 전년(949건) 대비 125%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9일(목)에 2026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2차년도('25.1.~12.) 성과평가 결과 및 사후지원금 지급(안)과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 유관학회·협회, 환자단체 등 위원 15인으로 구성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5개소 중 지정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14개소*를 대상으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안동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인하대병원, 순천향천안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이상 가나다순, 14개소)

** 성가롤로병원('26.2월 지정)은 3년 미만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1개소)

이번 평가는 1주기 재지정('23~26년) 이후 최근 42개월('22.7.1.~'25.12.31.)의 진료실적과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①**기본요건, ②필수시설 및 인력기준, ③치료역량기준(이상 시행규칙 별표2 기준), ④최근 3개년 운영평가 지표 총 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다.

평가 결과, **14개 기관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운영평가 지표 충족률도 적정한 수준(평균 94.2%)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재지정 평가결과 관상동맥 우회술·대동맥수술 등 고난도 심혈관 **수술에 대한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는 3개 기관**(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안동병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지정 후 별도 성과 관리 절차를 운영해 매년 실적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한편, 2025년도 **운영평가가 우수한 상위 3개 기관**(울산대병원, 순천향천안병원, 원광대병원)과 **전년('24년) 대비 운영평가 지표 충족률이 크게 상승한 상위 4개 기관**(전남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동아대병원)에는 **성과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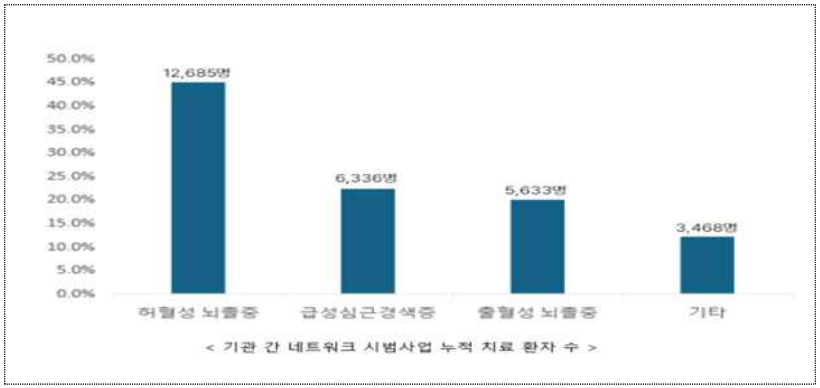
2. 네트워크 시범사업 2차년도('25년) 성과평가 및 사후지원금 지급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내 최종 치료를 위해 추진 중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24.2월~'26.12월)'의 2차년도('25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사업 규모 확대와 함께 치료 적시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

•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중심으로 병원 전(前) 단계의 구급대원 ↔ 의료진 간 연계를 통해 신속한 이송병원 결정 및 최종치료 제공을 위해 도입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참여병원(53개소)과 119 구급대 간 핫라인을 구축한 10개 네트워크(63개 기관)가 운영 중이며, 2026년 6월 말 기준 누적 27,897명*의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하였다.



<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 누적 치료 환자 수 >

* 중복질환자는 1명으로 산출 값이며 도표상 환자 수는 중복질환자를 포함

2차년도 평가 결과, 119 신고부터 최종 치료 시작까지 소요시간이 1차년도 대비 출혈성 뇌졸중은 310분 18초, 허혈성 뇌졸중은 20분 54초 단축되었으며,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율도 76.5%로 전년(73.7%) 대비 2.8%p 상승하였다.

(2) 전문의 간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 간 전원 단계에서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환자 의뢰 및 수락 체계를 거쳐 전문치료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도입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전용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실시간 의뢰·수락하는 인적 네트워크는 56개(전문의 1,416명)가 운영 중이다.

2차년도 환자 의뢰 건수는 2,137건으로 전년(949건)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이 중 95.3%(2,037건)가 최종 치료 전문의에게 수락되었다. 평균 수락 반응시간도 4분 36초에서 3분 12초으로 단축되는 등 진료협력 성과가 개선되었다.

(3) 2차년도 사후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총 105.7억 원의 사후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기관 간 네트워크(10개, 65개소 평가)에 71.5억 원, 인적 네트워크는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54개 네트워크에 34.2억 원을 지원한다.

3.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선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시범사업 종료 기한 도래와 「필수의료 강화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27.3월 예정)에 발맞춰 시범사업 개편 및 고도화 방향을 보고하였다.

먼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총괄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해당 진료권 내 기관·인적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급대의 이송 단계(기관 간 네트워크)와 병원 간 전원 단계(인적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네트워크 간 상호 협력실적을 반영한 신규 평가지표를 도입('27.7월)하고, 의료자원 부족 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유형별 운영모형 다각화 및 사후 보상체계 개편('28.1월 시행 목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이형훈 제2차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과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고도화는 지역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핵심 기반**이

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재지정 평가 개요
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기준
3.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요
4. 네트워크 시범사업 성과평가 개요
5.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원금 산정방식
6. 네트워크 시범사업 도표

담당 부서	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044-202-1940)
		담당자	사무관	김제중 (044-202-1941)

붙임1 재지정 평가 개요 (안건 1 재지정평가 관련)

□ 평가목적

○ 평가 과정을 통해 내·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역량 강화 및 심뇌혈관질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 **권역심뇌센터 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된 기관**은 **향후 3년간('27~'29년) 권역심뇌센터 지위 유지**

□ 지정근거

○ 「심뇌혈관질환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 평가 대상

○ 현재 지정·운영 중인 권역심뇌센터 15개소 중 지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14개소** * 3년 이내 지정 기관 1개소 제외(성가롤로병원, '26.2월 지정)

지정년도	기관명	지정년도	기관명
'08	강원대병원	'09	충북대병원
'08	제주대병원	'10	충남대병원
'08	경북대병원	'10	원광대병원
'09	경상국립대병원	'10	동아대병원
'09	전남대병원	'12	인하대병원

□ 평가 절차

자료제출		평가진행		결과확정
권역심뇌센터	≫	재지정 평가위원회 (대면평가)	≫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26.8월		'26.9월		'26.11월

붙임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기준 (안건 1 재지정평가 관련)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3. 6. 2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심뇌혈관질환 전체에 대한 내·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확보할 것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다.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진료·재활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확보할 것
 라. 관할 권역, 지역 의료기관, 지역 의사회 등 심뇌혈관질환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
 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포괄적 진료체계 및 전주기 관리체계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2. 필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심혈관 중환자실, 신경계 중환자실, 심뇌혈관 조영실(照影室),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술실을 확보할 것
 나. 응급심뇌혈관질환 환자의 분류 및 초기 대응 전문의를 확보할 것
 다. 심혈관 중재시술 전문의, 뇌혈관 중재시술 전문의를 확보할 것
 라. 심장 수술 전문의, 뇌수술 전문의를 확보할 것
 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시설, 재활치료 시설을 확보할 것
 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의를 확보할 것
 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아. 환자 등록 관리, 교육 전담간호사, 센터 운영 관리자 및 행정 담당자를 확보할 것

3. 치료 역량 기준
 가.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공휴일·응급 비율
 나.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수술, 판막수술 합산 건수
 다.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라.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공휴일·응급 비율
 마. 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응급 비율
 바. 개두술 건수

※ 비고
 치료 역량 기준은 각 목 지표의 양적수준과 임상수행능력 등 질적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붙임3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요 (안건 2~3 네트워크 시범사업)

□ 기관 간 네트워크 대상질환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 **(목적)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중심으로 **병원前단계**의 **구급대원↔의료진 간 연계**를 통해 신속한 이송병원 결정 및 최종치료 제공

○ **(구성) 권역심뇌센터** 1개 + **참여병원** 3~6개 + **지역 소방**(구급대)

- **63개 병원***으로 구성된 **10개 네트워크** 운영 중('26.7월 기준)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 참여병원 53개

○ **(작동방식)** 네트워크별로 **119구급대↔권역심뇌센터 네트워크 참여의료기관 간 핫라인 구축** 및 **핫라인을 통한 환자 선별**(Triage) 후 **이송병원 결정·이송**

□ 인적 네트워크 대상질환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 **(목적)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 간 전원 단계**에서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 **환자 의뢰 및 수락**을 통해 **전문치료 간 연계 활성화**

○ **(구성)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7인 이상**

- **1,416명 전문의**로 구성된 **56개 네트워크** 운영 중('26.7월 기준)

 * 목표질환 유형에 따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대동맥증후군, 급성심근경색증+급성대동맥증후군 네트워크로 구성

○ **(작동방식)** 인적 네트워크 소속 전문의*가 전원이 필요한 환자를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의뢰** → 해당 환자 **검토, 수락 및 이송**

 * (참고) 대동맥박리 등 전국적으로 치료자원이 희소한 질환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치료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미참여 의료진**'도 **환자 의뢰 가능**('24.4월~)

붙임4 네트워크 시범사업 성과평가 개요 (안건 2~3 네트워크 시범사업)

□ 평가 개요

○ **(대상기관)** 10개 권역(63개 참여기관), 56개 네트워크

○ **(대상기간)** '25.1월 ~ 12월

○ **(평가기간)** 연차별 시범사업 시행 차년도 2-3분기에 평가

○ **(평가방법)**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평가 기준

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점) 1년	가중치(점) 2~3년
네트워크 단위	안전망 구축		① 24시간·365일 전문진료체계 유지	10	10
	적시성	1년차	② 구급대 현장 도착 후 최종치료까지 평균 소요시간	30	30
		2~3년차	구급대 신고 후 최종치료까지 평균 소요시간		
	경로설정		③ 네트워크 지역친화도 개선	10	15
	진료결과		④ 입원 후 30일 내 사망률 개선	10	15
참여기관 단위	평가자료 관리		⑤ 자료제출 정확도	20	10
	적시성		⑥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율	10	10
	진료결과		⑦ 입원 후 30일 내 사망률 개선	10	10
합계				100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⑧ 네트워크 활동 및 구축·운영 수준	-	

② 전문의 간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평가지표	가중치(점)
① 의뢰 1건당 평균 반응시간(분)	30
② 의뢰-수락 비율	30
③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율	40
합계	**100**

붙임5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원금 산정방식 (안건 2~3 네트워크 시범사업)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금 산정 방식

◇ **(사전지원금)** 응급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지원금의 50% 사전 일괄지급**

- **(취약지 지원금)**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참여시 **권역센터와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게 **사전지원금의 30% 지급**

◇ **(사후지원금) 운영성과**와 **연계,** 네트워크 **지원금의 50% 사후 차등지급**(0~120%)

< 권역 네트워크 지원금 지급구조 >

	사전지급		
	사전지원금		취약지 지원금
권역센터	(A)	+	(A)×30%
참여기관 (비취약지)	(B)	+	
참여기관 (취약지)	(B)	+	(B)×30%

주: 1) 참여기관이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단일진료 제공 시, 사전지원금(B)의 70% 지급
2) 성과관리지원금 : 연차별 네트워크 운영체계 구축 및 성과향상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권역센터에 지급

< 사전/사후 지원금 지급률 >

종합점수 구간	사전지원금
90점 이상	100%
80 ~ 89점	100%
70 ~ 79점	100%
60 ~ 69점	100%
50 ~ 59점	100%
50점 미만	100%

2 전문의 간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지원금 산정 방식

◇ **(사전지원금) 시범사업 연차별 네트워크 지원금의 100%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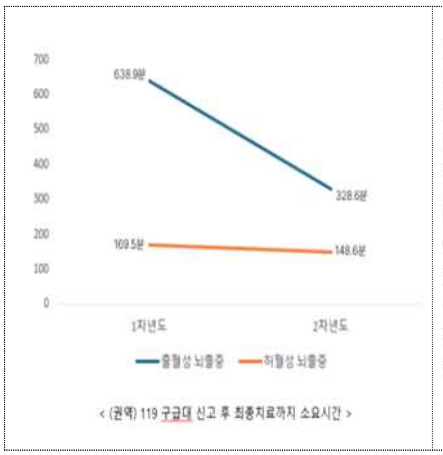
◇ **(추가지원금) 네트워크 운영성과**에 따라 **사전지원금의 최대 40% 차등지급**(0~40%)

< 종합점수 구간별 지원금 지급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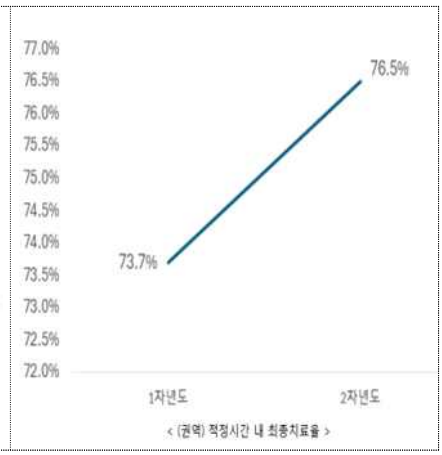
종합점수 구간	사전지원금
90점 이상	100%
80 ~ 89점	100%
70 ~ 79점	100%
60 ~ 69점	100%
60점 미만	100%

붙임6 네트워크 시범사업 도표 (안건 2 네트워크 시범사업)

○ (권역센터 네트워크) 119 신고 후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 및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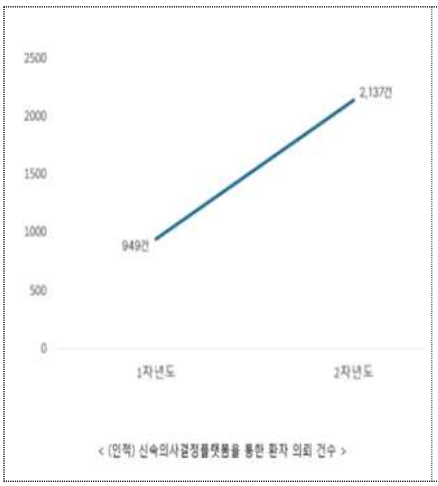


< (권역) 119 구급대 신고 후 최종치료까지 소요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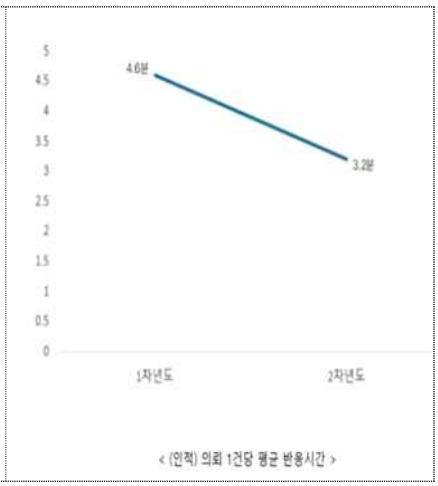


< (권역)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율 >

○ (인적네트워크) 신속의사결정플랫폼을 통한 환자 의뢰건수 및 평균 반응시간



< (인적) 신속의사결정플랫폼을 통한 환자 의뢰 건수 >



< (인적) 의뢰 1건당 평균 반응시간 >